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국: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이름 형상 믿으니 밖으로 찾게 됩니다

15면에서 계속

기 때문에 죽어 갈 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심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생각 할 때에 오장육부의 이 의식들이 다 응해줘야 돼요. 응해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로 화한단 말입니다. 모습이 거기 있으면서도 그 보살로 화해서 왕래 없이 왕래를 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참 모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선장, 즉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운전수를 자기라고 그러지 어떻게 차를 자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는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끌고 가는 것은 운전수가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깥에서 은총 들어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없다는 얘깁니다. 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없다. 관하라. 그러면 어떻게 관하느냐. '너가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는 거죠. 거기다 믿고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축통 속명통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내 누진에 딸린 수혜요. 누진에 딸린 수혜 곧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 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에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동적인 컴퓨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력이 되면 온 우주 전체에 다 그게 퍼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다 음파를 통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핑글고 그러는 거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람이 눈도 똑같고 귀도 입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한 생각이 틀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되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지금 물질세계만 보는 거니 심안으로 보라. 심안으로 본다면 정말 심안으로 또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 심안으로 들을 줄 안다면 공부가 돼서 심안으로 보게 되고 그러하면 바로 법안으로도 보게 되고 해안으로도 보게 되고 불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자유스럽다는 얘깁니다. 내 모습은 여기 두고도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이 수 만이 돼서 이 허공에 깔려있을 수도 있는 사실이지요.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한 게 없네. 내가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네.' 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쉽게 말해서 일체 중생이 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기 때문이예요. 자기 생명 아닌 게 없고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자식 아닌 게 없고 자기 부모 아닌 게 없이 전부 그렇게 다 인연을 지으셨어요.

그 인연을 지으신 걸로 하여금 말을 하려면 단박에 개구리가 '날 좀 살려줘야 할 텐데...' 하고 내뿜고 통한다면 진화가 되죠. 내뿜고 통하지 않는다면 거죽으로는 아무리 쪼아대도 그건 안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구리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부처가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어떤 게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한 모금 마시되 이 물을 내가 먹었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물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있어서 이 물을 제가끔 나누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

러분도 물 한 모금 마셨을 때에 '아.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은 이 생명들의 집이예요. 그런 까닭에 그 집을 가지고 사는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먹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말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산다고 말을 못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도 못하십니까. 모두가 공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모두 한 분 한 분 실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해보신다면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극락은 내 마음 속에 극락이 있어야만 진정한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대해 아까 얘기하다 말았군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차원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된 대로 그대로 다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는 걸 잘못 보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을 잘못 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냥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그 날은 싸움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타외에서 들어오든지 또는 생각도 안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지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삶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울고 때에 따러서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구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왜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야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아님이 없네.' 하였던 것은 미생물도 걸어다가 앞다리가 짧아서 앞으로 고구라치게 생기고 잡혀먹게 되면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나는 다리가 짧으니까 이 앞다리를 조금 길게 해야만 이 내가 잡혀먹히지 않겠구나. 막 뛰어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라 이 얘깁니다.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진화를 할 때에 그렇게 안되죠. 그러니 뭐 모두 입력이 된 대로 나오니까 거짓도 없고 우연도 없고 모두가 사실이죠. 그냥 사실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실천으로 해봐라 이겁니다.

서 나는 절대 안먹어.' 이러죠. 그러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자입니다. 술 마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깐 이 살림도 오락가락 하고 생활도 오락가락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기간도 이게 그냥인 것 같지만

이 다 먹고 남어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고 먹고 모든 걸 다 쥐도 아깝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쥐를 못 주지 부자가 왜 못줍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마음을 쓰

산이라고 돼 있죠. 푸른 산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구요.

그리고 사람은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마리아를 찾든지 그 이름은 상관 없이요. 다만 자기 자신 안으로 찾으세요. 안으로,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으세요.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

돈 벌어가지고 오느라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참 제가 고생도 많이 시켜드렸죠. 이제 좀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장독을 닦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어오더니 그 어머니를 붙들어 앉히구선 그거를 자기가 대신 씻어서 다 얼어놓는 주머니를 부시려 부시려 하더니 돈을 꺼내서 어머니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백분지 일도 안되지만 저의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집에 왔느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부터 그렇게 착한 아들이 돼서 아주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본보기가 됐더라고요.

그럼과 같이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자식 기간에도 그렇고 이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람 사람이 한결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내 탓 내 탓하고 미워하고 이쁘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모두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 사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는 우연히도 없고 팔자운명도 없죠. 결국 자기가 벌여놓은 일을 자기가 거두는 거죠. 여러분도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안하던 사람은 그것도 습이 돼서 습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습도 거기가 놓아야 되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 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크스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교포신문의 황성범 기자입니다. **문** 오늘 크스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다.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다 라고 하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가치관 상실의 세기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30년 연륜을 쌓아오면서 그동안 3만 5천 명으로 늘어난 재독한인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각 다른 의미로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하나다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운곡 안에 갇힌 것 같은 아픈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 오늘 크스님께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저희들 마음 속에서는 함께 삶의 일부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마음 속에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두려운 때가 끼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크스님의 큰 가르침이 저희 삶의 일부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발원합니다.

스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고국으로 떠나시더라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라면 멀리 떠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 속에는 늘 스님의 마음이 있고 또 스님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있었지요. 가시더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 독일 땅에 살고 있는 재독 한인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님께서 마음 속에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먼길을 마다 않고 와주신 크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될 수 있으면 한마음을 한뜻이 돼서 이 도리를 꼭 알아서 또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난 정말이지 살기 좋게 왔다.' 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되길 바랍니다.

*** 위 법문은 1999년 7월 31일 독일대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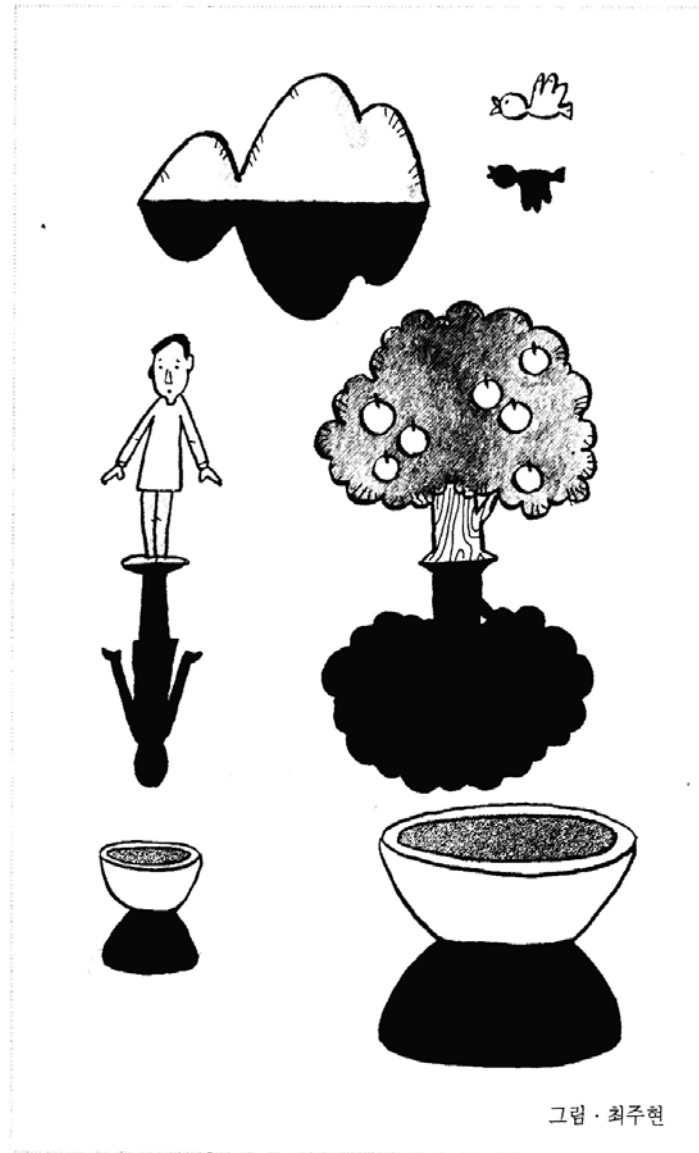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자기가 벌여놓은 일 거두는 도리 알아야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살림도 오락가락

내가 왜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안해드리면 이 다음에 더 나은 말도 할 수가 없죠. 더 큰 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란 한 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 없이 나를 발견해서 공부하기에 힘써야죠. 오만하고 잘나서야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살던 것은 다 내버리고 내 몸까지도 내버리고 가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그 자기가 마음에 지니고 살아왔던 그 누적된 보배를 가지고 다시 그 보배와 더불어 같이 이 세상을 다시 형성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에너지가 있는 참 좋은 세상에서 사세요. 물론 여기도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지 않은 대로 살 것이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살 것이고 그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부족한 대로 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누구나 다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모두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참 별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본받지 쥔 본받겠습니까. 꼭 본은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

리끼리 차원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구요. 왜 시장에 가면 금방엔 금이 놓여있고 냄바전엔 냄바가 모여 있죠. 따르따로 전부 개리끼리 모여 있죠. 사람도 개리끼리 있고 물건도 개리끼리 있습니다. 따르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인연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부가 살면서 서로 '너가 잘못했다.' 이라고 싸우던 말입니다. 그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끼리 만났다면 똑같은 사과끼리든 어떻게 똑같은 사과가 파더러 너 잘못 했다고 나무라겠느냐는 이거죠.

그 러니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거죠. 모든 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잘못든 못났든 간에 자기 탓이지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구요. 아무리 친절해도 대신 쫓겨주고 잡혀주고 밥 먹여주고 아파주고 죽여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두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부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의 부리를 자기가 알아야 그 부리를 믿고 그 부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죽 말하자면 푸르른 일세를 해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

기간요. 돈이 몇 푼 없어 가지고 벌벌벌 벌 떨고 진짜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둑질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 도리를 전세계에서 다 알 수만 있다면 전세계가 아마 그대로 불국토일 것입니다. 생명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땅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 서쪽에 이 지원을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자기로부터 내가 독일의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자성을 믿고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바깥으로 해매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모마리아!' 이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이름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그 이름만 부르고 다니는 분들이 허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면 지극도 한 주머니예요. 지극도 공기주머니 한 주머니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따르따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죠. 내가 그릇이 작다고 작은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냥 마음을 넓혀서 살아보자. 그럼 내가 알만큼 넓어지나. 이 세상에는 나무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아주 보기 좋은 게 있고 구부러진 게 있고 비틀린 게 있고 벌레 먹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자기가 아니예요. 영혼의 근본이 자기요. 즉 여러분의 중심의 집을 지으려면 대를보가 올라가고 기둥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 그 자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마주치면 영은 아무리 수십 개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영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대로 통해서 가다보면 마음이 변해서 화목하게 되죠.

이런 예가 있었죠. 하도 아들이 나가서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만날 어머니가 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여기 다니지 3년이 되는데도 지금 2년만에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니깐 '항상 아들과 제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항상 관했더니 몇 달 안돼서 나쁜 친구들을 다 버리고 탄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돈도 없고 해서